

사회화 요인들이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친사회적 및 규칙위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김 경 연* · 하 영 희**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의 상관관계 및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에 대한 사회화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중학교 1,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남·녀 청소년 69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친사회적 행동, 규칙위반 행동, 부모의 훈육태도 및 부모와 친구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을 평가하는 문항에 각각 응답하게 하였다.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간의 상관관계는 연령별·성별로 분리하여 검증한 결과 모두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에 대한 사회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가장 설명력 있는 주변인은 두 행동 모두 친구의 모델링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들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해석하고 그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 서 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한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사회화되는가는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규범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 그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 등은 한 개인의 도덕적 행동으로 표출된다. 따라서 도덕적 행동이란 필연적으로 사회지향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 한 예로 Maccoby(1968)는 도덕적 행동이란 한 사회 집단이 '옳다' 또는 '그르다'라고 판단하고 그 행동에 대해 집단이 보상 또는 벌을 주는 행동이라고 하였다(유기섭, 1994: 재인용).

도덕적 행동과 관련하여 여러 이론가들은 도덕적 행동을 위로하기, 도와주기, 협동하기 등과 같은 도덕적 권장 행동과 속이기, 거짓말하기, 훔치기 등과 같은 도덕적 금지행동으로 분류하여 연구해왔다(최순영·김수정, 1995). 본 연구에서

* 부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는 도덕적 권장 행동을 친사회적 행동으로, 도덕적 금지 행동을 규칙위반 행동으로 명명하기로 하였다.

도덕적 행동과 관련한 이 두 개의 하위 영역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를 보면, Hurcuk(1985)는 어린 유아의 경우 인지적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공격성이나 빼앗기 등의 반사회적 행동이 증가함과 동시에 도와주기와 공유하기 등의 친사회적 행동도 나타난다고 하였고, Jersild는 유아의 자아중심성으로 인한 배타적인 행동과 아울러 또래를 배려하는 초보적이고 친사회적 행동이 평행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김제한, 1998. 재인용). 이런 결과는 규칙위반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의 정적상관을 보여준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일탈행동의 예방을 위하여 아동들이 협동적으로 행동할 것을 격려하고 그런 행동을 강화한 결과, 아동들의 공격행동 빈도가 감소되었다고 Brown & Eliot(1965)와 Patterson & Reid(1970)는 보고하였고, 도덕적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직성과 협동심이라는 두 개의 행동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Mussen, Harris, Rutherford & Keasey(1970)는 11~12세의 정상 지능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정직과 협동에 대한 도덕적 행동을 측정해 준 결과 정직과 협동심이 각각 독립적임을 보고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 Mussen과 Rutherford(1976)는 정직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고 타인의 행복과 복지를 고려하는 친사회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였다(이춘재 외, 1995. 재인용). 최근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1996a) 등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도덕적 행동을 연구한 결과 돕기, 친절, 공유, 협동과 같은 행동을 많이 할수록 훔치기, 속이기, 거짓말, 약물 남용 등을 적게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간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못하고 있어 재규명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지적으로 형식적 조작 능력을 갖춘 청소년의 경우 Bandura 등(1996a)의 연구결과와 같이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간에 부적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욱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일탈행동이 날로 증가하면서(청소년 백서, 1997)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덕교육의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도덕적 행동에 대한 연구를 보면 일반적으로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을 규명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발달적 특성상 부모로 인한 사회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또래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기이므로 이런 변화에 직면하여 부모와 친구집단 가운데 어느 집단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청소년들이 받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줄 연구가 필요하

다.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하여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요인으로 부모의 훈육태도 및 모델링 효과를 제안할 수 있다. 훈육태도가 도덕적 행동에 중요한 요인임은 다수의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으나 연구의 결과들이 일관성이 없어(Hoffman, 1970; Sears 등, 1957)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행동과 관련하여 부모의 모델링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여러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훈육태도와 모델링 효과 중 어느 요인이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에 더 영향력이 큰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국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부모요인은 아동의 도덕적 행동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다(여인숙, 1984; 이봉선, 1989).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그 심리적, 생리적 특성상 친구요인을 간과할 수 없는 주요인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은 부모보다 친구를 더 적절한 모델로 여길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과 유사하다고 지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음악과 오락의 취향, 의복과 언어의 유행 등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 도덕적 행동의 경우는 어떠한가? 흠치기와 관련하여 친구의 영향을 연구한 Ross(1971)와 친사회적 행동과 친구간의 관계를 연구한 한영희(1986)는 도덕적 행동 수준에도 친구의 영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보가(1993)는 부모와 친구들은 청소년의 행동의 다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데 부모의 영향은 기초적이고 도덕적이며 사회적인 가치 등에서 지배적이라고 하였다.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친구요인 가운데 어느 요인으로 부터 더 많은 영향을 청소년들이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일관성 없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이춘재 외 8인, 1992. 재인용).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덕적 행동에 대한 부모요인과 친구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가정과 또래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해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 도덕적 행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부모의 영향력과 친구의 영향력에 대한 상대적 비중을 재규명하고자 하였다.

규칙위반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이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여러 선행연구(원효현, 1987; 이점숙, 1984; 이현우, 1988)들에 근거하여 연령별, 성별간의 차이도 아울러 보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인 규칙위반 행동은 성인들의 범주에 준하여 사용되고 있는 '비행'이라는 용어에 비해, '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범죄 수준에 이르지 않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행'보다 축소된 일반적인 가벼운 위반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년을 대상으로 도덕적 행동의 두 영역인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간의 관련성 및 연령별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와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도덕교육에 도움이 될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문제

위의 연구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 둘째,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셋째, 사회화 요인들(부모요인, 친구요인)에 따라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넷째,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에 대한 사회화 요인들(부모요인, 친구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관련 연구 고찰

1.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의 관련성

개인의 대인 관계 행동의 질은 자제력과 사회적으로 수용되어 지켜야 하는 표준들에만 관계있는 것은 아니다. 즉 행동이 금지적 규정과 제한을 지키는 것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규범적 도덕법칙 곧 그 문화의 구성원이 꼭 해야 하는 것과 수용가능하며 존중되는 표준들에 근거한 사회적 행동이 똑같이 중요하다. 이 범주에는 사회의 규칙을 지키는 행동과 도움, 협동, 동정심과 같은 매우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도덕성 연구 이론가들은 도덕적인 행동을 남을 돕는 것과 같은 긍정적 이타행동과 흠치는 것과 같은 반도덕적인 것이 있다고 하였다(조복희·유가효·정옥분, 1996). 여기서 남을 돕는 것과 같은 긍정적 이타행동은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권장 행동인 친사회적 행동을 말하며 도움, 친절, 공유, 협동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 아울러 흠치는 것과 같은 반도덕적인 행동은 그 문화의 구성원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규범과 관련된 도덕적 금지 행동, 즉 규칙위반 행동이다. 여기에는 속이기, 거짓말하기, 흠치기, 규칙 어기기 등이 포함된다.

도덕적 행동과 관련한 이 두 개의 하위 차원간의 상관에 관심을 가지고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있다. Hurcuk(1985)는 어린 유아의 경우 친사회적 행동도 나타나지만 인지적 능력 부족으로 반사회적 행동도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Jersild도 유아의 경우 배타적인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이 평행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다(김제한, 1998. 재인용). 또 김제한은 어린 유아기는 어른이 시킨 일이나 욕구좌절에 대해서 반항심이 나타나는 동시에 협동, 동정 등의 친사회적 행동도 같이 싹트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유아와 관련한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체로 어린 유아들은 인지능력 부족으로 사회규칙을 이해하지 못하여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아무런 갈등없이 한다. 예를 들어 가게에 가서 과자를 집어오거나 같이 놀던 유아의 장난감을 가져가기도 한다. 그러나 유아들에게도 초보적인 친사회적 행동이 일찍부터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는데 Hoffman(1975)은 어린 유아도 감정이입을 하듯이 또래가 울면 같이 운다고 하였고, Hay(1979)도 유아가 다른 또래와 협동하며 교대로 해야하는 상호작용 놀이를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일탈행동을 막기 위하여 아동들이 협동적으로 행동할 때 칭찬해 주었더니 그들의 공격행동 빈도가 감소되었다는 Brown & Eliot(1965)와 Patterson & Reid(1970)의 연구결과와 Perry와 Bussey(1984)의 친사회적 행동을 아동에게 요구하는 것이 공격적인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견해는 규칙위반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은 서로 독립적인 차원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계속하여 정직성과 협동심이라는 두 개의 행동에 대한 연구가 Mussen, Harris, Rutherford & Keasey(1970)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들은 11~12세의 정상 지능을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정직과 협동에 대한 도덕적 행동을 측정된 결과 정직과 협동심은 별개라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Rest(1984)도 역시 여러 도덕 행동간의 영역들, 즉 유혹을 참는 능력과 돕는 행동간에는 별로 높은 상관성이 없다고 하였다(홍순경, 1989. 재인용). 그러나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1996a)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을 검증한 결과 돕기, 공유하기, 친절, 협동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은 거짓말, 흠치기, 약물 남용과 같은 행동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역시 같은 해에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는 추후 연구(1996b)에서도 협동, 친절, 공유하기, 돕기와 같은 행동은 과잉 활동, 공격성, 규칙위반 행동, 불복종 등과 같은 행동과 -.30의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도덕적 행동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어 왔으며, 이 선행연구들은 주로 규칙위반 행동의 측면에서만 혹은 친사회적 행동의 측면에서만 분

리되어 다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여인숙(1987), 장휘숙(1978) 그리고 정문성과 구경화(1991) 등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연구를 보면 규칙위반 행동의 일종인 속이기 및 일탈행동과 관련한 연구들로서 도덕적 행동과 지식과의 관계 혹은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등을 밝힌 것이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연구 역시 친사회적 행동 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 아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연진영, 1987; 이점숙, 1984; 정현희, 1990). 이와 같은 도덕적 행동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은 규칙위반 행동과 친사회적 행동 각각의 행동에 관심을 보였을 뿐 이 두 행동간의 상관성을 본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2. 사회화 요인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은 복잡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환경적 여러 요소들을 주체적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 요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부모와 친구요인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부모요인-훈육태도와 모델링

부모는 자녀의 사회화에 중요한 요인이며 자녀의 도덕적 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녀에 대한 훈육태도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의 훈육태도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로서 자녀의 인성이나 행동은 부모의 훈육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여러 연구자들 중 특히 Sears와 Hoffman은 부모의 훈육태도가 자녀의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보았다. 훈육태도에 관한 아마도 가장 고전적인 연구는 Sears, Maccoby & Levin(1957)에 의한 ‘육아방식의 유형’ 연구일 것이다. 그들은 칭찬하는 것과 애정철회 유형 등의 심리적 방법이 체벌, 아동의 특혜를 빼앗는 등의 물리적 방법보다 자녀를 더 양심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체벌을 자주 사용하는 부모보다 체벌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이 강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Sears 등은 자녀가 잘못 했을 때 부모가 표시하는 애정철회가 자녀의 양심을 조장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Hoffman(1970)은 자녀들의 도덕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부모의 훈육방식 유

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즉 무엇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설명해주는 설득형(*induction*)과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관심, 사랑, 인정을 해주지 않음으로써 사랑의 상실에 대한 불안을 일으키게 하는 애정철회형(*love withdrawal*) 그리고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어른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큰 소리를 지르기, 물리적인 제지, 때려주기 및 특권을 박탈하기 등의 완력사용형(*power assertion*) 등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애정철회나 완력사용의 방법은 아동의 도덕적 성숙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설득형만이 도덕적 정서, 도덕적 추론 그리고 도덕적 행동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윤영화(1978)와 정현희(1990)가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훈육방식 중 설득적인 방법이 아동의 도덕성 발달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Dlugokinsk와 Fireston(1974)는 중하 계층의 5학년, 8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가상적인 부모-자녀의 갈등 상황에서 힘의 주장을 측정하고, 연구에 참여한 것에 대하여 받은 돈을 UNICEF에 기부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 대한 고려에 있어서 또래 평가를 연구하였다. 어머니의 힘의 주장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나누기와 다른 사람 지향가치에서 작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을 보였으나 이타성에 대한 또래의 평가와는 관계가 없었다(정현희, 1990. 재인용). Perry와 Bussy(1984)는 처벌도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정도를 지나치지 않는 한 옳은 행동으로 자녀를 이끄는 데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부모의 훈육태도와 더불어 자녀의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부모요인으로는 모델 효과를 들 수 있다. 특히 모델 효과는 Bandura의 사회학습 이론적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바람직한 도덕적 행동 모델에 노출되는 정도가 높을수록 관찰자의 도덕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도덕적 행동은 외적 강화 없이도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획득된다고 한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부모와 유사한 가치관 및 습관을 형성한다. 부모가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델이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가까이서 쉽게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모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도덕적이어야 한다. Hoffman도 부모는 자녀의 모델임과 동시에 자녀와 사회를 이어주는 연결자라는 점에서 자녀의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증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주변에 있는 모델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2) 친구요인-모델링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에 부모의 모델 효과 만큼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친구의 모델 효과일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자율성 욕구 증대로 또래와의 관계가 더욱 더 친밀하게 맺어지게 되어, 아동기와는 달리 사회의 상대적 영향력이 커진다. 또래는 새로운 가치에 대한 자극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개인적 가치를 찾아가게 만드는 거울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또래들의 생각은 집단압력으로 작용될 수도 있고, 또래에게 수용되기 위해 또래와 같은 행동 및 사고를 가질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행동, 즉 친절, 협동, 친구애 등을 또래와의 교류에서 배울 뿐만 아니라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것도 또래와의 접촉으로 배운다. 따라서 Piaget와 Kohlberg는 도덕발달과 관련하여 또래의 영향이 매우 큼을 강조한 바 있다(John, 1996).

모델 효과는 그 모델이 관찰자에게 보다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일수록 보다 효율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히 또래라기 보다는 가장 친한 친구의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흡치기와 관련하여 비행친구의 모델링 효과를 보고한 Ross(1971)와 역시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모델링 효과를 보고한 한영희(1986)의 연구는 좋은 예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중 도덕 발달에 친구가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모델 효과와 관련하여 또래와 부모와의 상대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보면, Wolf & Chyne(1972)는 금지된 행동 모델 효과에서 부모의 행동보다는 또래의 행동을 더 모방한다고 하였다(Lickona, 1976. 재인용). 그리고 7학년 학생들이 9학년이 될 때까지의 종단적 연구를 통해 또래와 부모의 상대적인 영향을 밝힌 연구도 있다(Hu 등, 1995). 연구결과 피험자의 흡연에 대한 친구의 흡연 효과는 부모의 영향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흡연 영향은 비교적 항상 비슷한 것에 반해 친구가 흡연하는 경우 그 영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5세에서 18세의 청년들의 흡연이나 금연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도 친구의 영향과 부모-자녀 관계의 관련성을 볼 수 있었다. 친한 친구가 흡연을 하거나 혹은 자주 만나는 사람이 대부분 흡연자일 경우 청소년들이 흡연할 가능성은 더 컸다. 그러나 18세 때에는 다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고 부모가 흡연에 반대하는 경우에만 금연을 하거나 흡연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tanton 등, 1996).

부모의 도덕적 가치관과 친구의 도덕적 가치관이 서로 일치할 경우에는 도덕적 가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들이 서로 다를 경우는 청소년들이 도덕적 결정을 내리는 데 갈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청소년이 부모와 친구의 도덕

적 행동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는 이들이 청소년들에게 끼칠 대리학습의 영향을 살펴볼 때 아주 중요한 관심사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는 인지적 발달이 형식적 조작기에 들어섰음과 동시에 발달적 특성상 친구의 영향력이 다른 시기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을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남녀 중·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의 발달적 변화를 보기 위하여 청소년을 학년에 따라 초기, 중기 및 후기집단으로 나누어서, 청소년 초기를 대표하는 집단으로는 중학교 1학년을, 중기를 대표하는 집단으로는 중학교 3학년을, 후기를 대표하는 집단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청소년기의 대상은 장휘숙(1995)의 「'91 MBC청소년 백서」에 나온 중·고등학생들을 청소년으로 인정한 입장을 받아들였다. 연구대상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부산시의 한 지역구(군)에 소재하고 있는 한 개의 중학교와 두 개의 인문계 고등학교 남·녀 학생을 선정하였으며 최종 분석인원은 중학교 1학년이 236명, 중학교 3학년은 219명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은 243명으로 모두 698명(남:343명, 여:355명)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 척도 및 사회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훈육방식 척도, 부모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과 친구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을 평가하는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척도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각각 80명에게 ‘여러분 또래들이 할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을 쓰게 하여 기초 설문조사를 먼저 하였다. 이와 같은 자유반응을 분석하여 가장 빈도가 높고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으로 타당한 문항을 선별하여 각각 40개

의 예비조사 문항을 작성하였다. 특히 규칙위반 행동의 선별은 학생들의 자유반응에서 나온 내용과 이미경(1995)의 규칙위반 행동의 척도와와의 공통으로 된 내용들을 포함시켰다. 예비조사용 각각 40개의 문항은 청소년들이 한 학기동안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을 어느 정도 하였는지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반응점수 범위는 40점~200점이다. 먼저 각 문항들이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을 측정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예비조사한 질문지 자료를 가지고 전체에 대한 문항별 상관관계를 산출하여 상관계수가 .40 이하인 문항을 제외하여 척도별로 19개의 문항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본 조사 문항도 역시 각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의 반응 범위는 각각 19~9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의 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19개의 문항 내용은 도움, 협동, 관용, 공유 등에 관한 것으로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3이었다. 규칙위반 행동에 대한 19개의 문항 내용은 속이기, 훔치기, 교통법규 어기기, 공중도덕 지키기 등에 관한 것으로서 주로 일반적인 위반행동만을 측정한 관계로 각 행동의 점수에 가중치를 주지는 않았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74이었다.

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훈육방식 유형

부모의 훈육방식의 유형을 조사하고자 예비조사에서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지각한 부모의 훈육방식 유형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한 결과 크게 세 가지 유형 즉, 설득적 유형, 애정철회적 유형, 완력사용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 세 가지 유형이 Hoffman의 부모 훈육태도 유형과 일치하였고,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모의 훈육방식 유형을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본 조사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훈육태도 유형을 설득형, 애정 철회형, 완력사용형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응답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각하는 부모의 훈육방식에 해당하는 유형에 평정하게 하였는데, 예를 들어 완력사용형은 '화를 내시며 심하게 야단 혹은 손찌검을 하시거나 용돈을 한동안 안주신다'이다.

3) 모델링(부모, 친구)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에 대하여 청소년이 평정한 점수를 사용하여 모델링의 행동을 측정하였다. 청소년이 부모와 친구의 도덕적 행동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는 이들이 학생들에게 끼칠 대리 학습의 영향을 살펴볼 때 아주 중요하다. 물론 본 측정도구는 위의 훈육방식 척도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청소년이 부모와 친구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

을 지각한 것으로 실제 환경상에 나타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Murray는 실제 일어나는 사건의 압력보다는 개인이 지각한 압력이 보다 그 개인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이훈구, 1993. 재인용). 예비조사를 위하여 청소년 자신의 행동 평가에서와 같은 유목에 한정하여 이훈구가 주변어른들과 친구들의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항목들과 앞의 예비조사용으로 만든 청소년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 측정 항목들을 참고로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 각각 15개의 문항을 만들었다. 각 문항에는 부모와 친구의 행동을 모두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피조사자는 각 진술문을 읽고 부모와 친구가 그러한 행동을 어느 정도 하는가를 회상하여 3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지각 반응의 범위는 각각 15점~45점이다. 예비조사 후 질문지 자료를 가지고 전체에 대한 문항별 상관관계를 산출하여 변별지수가 낮은($r=.40$ 이하) 3개 문항을 제외시켜 친사회적 행동 척도와 규칙 위반행동 척도 각각 12문항을 최종 척도로 만들었다. 본 조사 문항도 역시 질문 내용에 대한 응답범주는 응답자의 지각 정도에 따라 3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 범위는 각각 12점~36점으로 점수가 많을수록 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문항내용은 도움, 협동, 관용 등에 대한 것이며, 규칙위반 행동에 대한 문항내용은 교통법규 지키기, 거짓말하기, 공중도덕 지키기 등으로 주로 일반적인 위반 행동에 해당하므로 각 행동의 점수에 대한 가중치는 주지 않았다.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이 .68,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이 .75, 부모의 규칙위반 행동이 .66 그리고 친구의 규칙위반 행동은 .77이었다.

3. 절차

본 연구는 기초 설문조사와 예비조사 및 본 조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방형으로 기초 설문조사를 1998년 6월 26일에 하였으며, 예비조사는 1998년 7월 3일에 고등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얻어진 질문지 자료를 계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한 본 조사는 1998년 7월 18일에서 7월 22일 사이에 부산시 한 지역구(군)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학생 74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가 해당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교사에게 응답 요령을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도록 하였다. 740부의 설문지를 모두 회수하였으나, 그 중 오기, 누락, 불성실한 응답 등의 이유로 인한 42부를 제외하고 최종 698부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되었다.

통계적 분석은 SPSS/PC에 의해 이루어졌다.

IV. 연구의 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간의 상관관계

청소년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간의 상관관계가 표 1과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간의 상관은 크게 높지는 않으나, 연령의 세 집단은 모두 유의하게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녀 두 집단에서도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령별 청소년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간 상관

친사회적 행동	규칙 위반 행동	
	청소년 초기	- .415 *
	청소년 중기	- .314 *
	청소년 후기	- .436 *

* p<.001

표 2: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의 상관

친사회적 행동	규칙 위반 행동	
	남	- .334 *
	여	- .435 *

* p<.001

이것은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이 독립적인 차원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Bandura, Barbaranelli와 Caprara & Pastorelli(1996a, b)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2. 연령,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의 차이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에 대한 연령, 성별간 차에 따른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표 3을 보면 친사회적 행동 수준은 청소년 초기에 가장 높게 나타나다가 청소년 중기에 행동 수준이 저하되고 다시, 청소년 후기에는 행동 수준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다는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으나 남을 돕는 행동과 연령과는 상관이라고 한 Hartshorne과 May (1925)의 주장과 일치하였다(연진영, 1987. 재인용). Scheffe검증 결과 청소년 초기 집단의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중기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규칙위반 행동은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가장 낮은 청소년 중기가 제일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청소년 비행이 가장 심한 연령이 15세라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장휘숙, 1995. 재인용).

표 3: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

	집 단	평 균	SD	F	Scheffe 검증
친사회적 행동	청소년 초기	60.295	9.683	3.721 *	a
	청소년 중기	57.986	9.531		b
	청소년 후기	59.852	8.705		ab
규칙위반 행동	청소년 초기	33.062	7.571	27,121 **	b
	청소년 중기	39.424	9.577		a
	청소년 후기	37.485	10.429		a

* p<.05 ** p<.001

표 4: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

	집 단	평 균	SD	F
친사회적 행동	남 자	58.332	9.682	10.404 *
	여 자	60.650	8.785	
규칙위반 행동	남 자	37.817	9.517	12.071 **
	여 자	35.250	9.611	

* p<.01 ** p<.001

표 4에서 보듯이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 모두에 있어서 남·여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자집단에 비해 여자집단의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규칙위반 행동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와 규칙위반 행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친사회적 행동은 적게 하면서 규칙위반 행동은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여자의 친사회적 행동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난 것은 Bryan(1975)과 이영주(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보다 경쟁적이고 비감정적인 행동을 주로 지지 받은 남자와 비경쟁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을 지지

받은 여자와의 사회 환경에서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3. 부모요인에 따른 청소년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

부모요인에 따른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을 검증하고자 부모 요인을 훈육태도와 부모의 모델링으로 나누어 먼저 유의한 차이를 알아본 후, 부모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먼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훈육 태도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 수준을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훈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

	집 단	평 균	SD	F	Scheffe 검증
친사회적 행동	설 득 형	59.946	9.032	3.893 *	a
	애정철회형	56.321	11.600		b
	완 력 형	59.101	8.853		ab
규칙위반 행동	설 득 형	35.197	8.795	17.238 **	b
	애정철회형	39.772	12.065		a
	완 력 형	40.206	10.332		a

* $p < .05$ ** $p < .001$

먼저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설득형과 완력사용형의 평균이 애정철회형보다 더 높게 나타나서 우리 나라의 경우 설득형과 엄격한 처벌적 통제가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같이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훈육태도에 있어 완력사용형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Dlugokingsk & Firestone (1974)의 연구와는 일치하였지만 국내의 정현희(1990)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였다.

이를 다시 집단간의 평균 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Scheffe 검증을 한 결과 설득 형과 애정철회형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설득형이 애정철회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칙위반 행동에 있어서는 사후검증 결과, 설득형에 비해 애정철회형, 권력단언형이 유의미하게 규칙위반 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에게 무엇 때문에 어떤 행동이 나쁜지를 설명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사랑을 철회해 버리거나 권력을 이용하여 자녀를 처벌하는 유형은 자녀의 규칙위반 행동을 오히려 증

가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6은 부모의 모델링 효과에 대한 유의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먼저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PMS)과 규칙위반 행동(PES) 점수를 각각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상, 하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 수준이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 6을 보면,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 수준은 낮게 지각하고 부모의 규칙위반 행동은 높게 지각한 집단보다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 수준은 높게 지각하고 부모의 규칙위반 행동은 낮게 지각한 집단의 친사회적 행동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역시 청소년의 규칙위반 행동에서도 부모의 규칙위반 행동을 높게 지각하고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은 낮게 지각한 집단이 규칙위반 행동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의 모델이 된다는 사회학습이론과 일치하였다.

표 6: 부모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에 따른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

	집 단		평 균	SD	F
친사회적 행동	PMS	상	61.742	8.828	56.653 **
		하	56.256	9.040	
	PMS	상	57.751	8.893	26.618 **
		하	61.538	9.637	
규칙위반 행동	PMS	상	35.526	9.199	9.975 *
		하	37.884	9.610	
	PES	상	38.949	9.611	56.492 **
		하	33.449	8.797	

* p<0.1 ** p<.001

청소년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훈육태도와 모델링 효과 중 어느 요인이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력이 더 큰 지를 규명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는데, 청소년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에 주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부모의 모델링 효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경우 훈육태도보다는 모델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여기서 부모의 훈육태도 유형은 가변인하여 분석하였다.

표 7: 청소년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에 대한 부모요인의 영향력

	예측변인	R ²	β	F1
친사회적 행동	P M S	.113	.336	77.493 *
규칙위반 행동	P E S	.129	.359	88.884 *
	완력사용형	.154	.162	54.515 *

* p<.001

4. 친구의 모델링 효과에 따른 청소년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

친구의 모델링 효과에 따른 청소년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을 검증하고자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FMS)과 규칙위반 행동(FES) 점수를 각각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표 8: 친구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에 따른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

	집 단		평 균	SD	F
친사회적 행동	PMS	상	62.339	8.123	112.119 **
		하	54.987	9.448	
	FES	상	57.994	9.476	19.732 **
		하	61.275	8.957	
규칙위반 행동	FMS	상	34.285	8.193	58.711 *
		하	39.861	10.405	
	FES	상	39.983	10.269	127.431 **
		하	32.089	6.446	

* p<0.1 ** p<.001

표 8에서 보듯이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은 높게 지각하고 친구의 규칙위반 행동은 낮게 지각한 집단이 친사회적 행동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또 규칙위반 행동에 있어서는, 반대로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 수준은 낮게 지각하고, 규칙위반 행동은 높게 지각한 청소년이 유의미하게 규칙위반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구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도 부모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흠치기의 모델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비행친

구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한 Ross(1971)의 연구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친구의 모델효과를 연구한 Eisenberg 등(198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5. 청소년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화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사회화 요인들이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 그리고 친구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을 예측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9: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중다회귀 분석

	예측변인	R ²	β	F
전 체	FMS	.184	.428	44.284 *
	PMS	.219	.194	27.539 *
청소년 초기	FMS	.220	.469	59.668 *
	PMS	.303	.319	45.863 *
청소년 중기	FMS	.184	.428	44.284 *
	PMS	.219	.194	27.539 *
청소년 후기	FMS	.228	.477	67.789 *
남 자	FMS	.264	.514	122.377 *
	PMS	.281	.138	66.457 *
여 자	FMS	.152	.390	53.939 *
	PMS	.210	.254	39.778 *

* p<.001

먼저 표 9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청소년 집단 전체에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순으로 설명력이 컸다. 청소년 초기와 중기 집단에서도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으로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 부모의 친사회적 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 후기 집단에서는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만이 주요 변인으로 나타나 청소년 후기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부모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세 집단 모두 친구의 모델링 효과가 부모의 모델링 효과보다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남·녀 성별에 따른 변인의 효과를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하여 남·녀 집단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 남·녀 집단 모두 부모보다는 친구의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더 영향력이 있는 주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9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부모 모델링 효과와 친구의 모델링 효과와의 상대적 영향력 비교에서 부모의 모델링 효과보다는 친구의 모델링 효과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0에 제시된 청소년의 규칙위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화 요인을 보면, 청소년 전체, 청소년 초기, 중기 그리고 후기 집단 모두 친구의 규칙위반 행동이 청소년의 규칙위반 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큰 주변인으로 나타났다. 역시 남·녀 성별에 따른 뚜렷한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남·녀를 분리하여 검증한 결과 남·녀 집단 모두 친구의 규칙위반 행동이 청소년의 규칙위반 행동에 가장 효과가 큰 주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10: 규칙위반 행동에 관한 종다회귀 분석

	예측변인	R ²	β	F
전 체	FES	.243	.493	62.575 *
	PES	.281	.211	37.990 *
청소년 초기	FES	.245	.495	64.802 *
	PES	.319	.311	46.640 *
청소년 중기	FES	.243	.493	62.575 *
	PES	.281	.211	37.990 *
청소년 후기	FES	.275	.524	87.580 *
남 자	FES	.264	.514	118.587 *
	PES	.300	.205	70.648 *
여 자	FES	.276	.525	113.021 *
	PES	.300	.174	63.295 *

* $p < .0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인지적으로는 형식적 조작기에 달하며 발달적 특성상으로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위하여 친구와의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남·녀 청소년을, 청소년 초기, 중기, 후기 집단으로 나누어서 도덕적 행동의 두 영역인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간에는 어떤 상관이 있는지,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 수준이 연령별,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회화 요인들에 따라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그리고 사회화 요인들(부모요인, 친구요인) 중 어느 변인이 청소년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에 더 영향력을 가지는가를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69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각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간의 관련성은 연령별, 성별에 있어 모두 유의미하게 부적상관이 있었으며 이것은 Mussen, Ratherford(1976, 이춘재 외, 1995. 재인용),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1996a) 및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1996b)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공격성을 억제하기 위해 친사회적 행동을 격려해야 한다는 Perry와 Bussy의 견해와 상통한다. 이런 결과는 두 행동이 서로 독립적인 차원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어 앞으로의 청소년 도덕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규칙위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책으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의 장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연구는 의의가 있으며, 후속 연구에서도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령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는 남을 도와주는 행동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연진영(1987)과 이점숙(1984)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런 결과는 친사회적 행동이 연령과 직접적인 관계를 지닌 것이 아니라 부모요인 혹은 다른 사회적 요인과 같은 다른 요인이 매개하여 서로 관련성을 지니게 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연령에 따른 규칙위반 행동 수준의 경우, Scheffe검증 결과 청소년 초기 집단이 중기, 후기 집단에 비해 규칙위반 행동이 적게 나타난 것은 요즘 청소년 비행이 저연령화 되어간다는(청소년 백서, 1997) 것에는 반대되는 결과이나, 청소년 중기 집단의 규칙위반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청소년 초기에서 중기로 전환하면서 따르는 청소년의 환경적, 심리적 특징이 규칙위반 행동과 관련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

청소년 중기에 해당하는 중 3년의 경우 고입에 따른 스트레스가 그들의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스트레스와 비행간의 정적상관을 연구한 Compas, Makarene와 Fondacaro(1988)의 연구결과를 예로 들 수 있겠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 집단이 남 집단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고 규칙위반 행동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더 관용적이고 남을 생각하고 도움을 주며 배려해 준다는 Sugarman(1970)의 연구결과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속인다는 Roskens와 Dizney(196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Wright, 1971. 재인용). 남자 집단에 비해 여자 집단의 친사회적 행동 수준이 더 높은 이유는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남을 돕고 보살피는 일이 여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 여아들이 주위나 부모의 강한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여자가 규칙위반 행동을 했을 경우 남자에 비해 엄격한 통제로써 여자에게 바람직한 도덕적 행동을 더 많이 강조하는 한국 문화의 사회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청소년이 부모의 훈육태도를 애정철회형(M=56.321)보다 설득형(M=59.946)으로 지각 할수록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 수준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Hoffman(197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완력사용형(M=59.101)은 Scheffe 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이것은 부모의 완력사용식 훈육태도가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만 알려져 온 일반적 견해가 부정되었다. 물론 이런 결과는 후속연구에서 다시 검증되어야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체벌(완력사용)은 적절하게만 사용된다면 사회화과정에 유익하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또 다른 관련 변인들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는데 평소의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의 질에 따라 부모의 완력사용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엄격하게 통제할 때—자녀의 연령, 성별에 맞는 친사회적 행동을 요구하며 또 이것을 엄격하게 강요할 때(필요하다면 체벌을 해서라도)—자녀는 친사회성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반사회성의 문항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Perry & Bussey, 1984. 재인용). 다음 규칙위반 행동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훈육방식은 완력사용형, 애정철회형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들은 역시 Hoffman(197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청소년들의 행동은 보다 건전한 자극이 제공되는 환경 속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될 때 청소년의 규칙위반 행동은 예방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모델링 효과에 있어서 청소년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 수준은 그들이 지각

한 부모와 친구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기서 친사회적 행동과 마찬가지로 모델링의 규칙위반 행동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규칙위반 행동도 높게 나온 연구결과를 볼 때, 이것은 관찰자가 모방을 통하여 모방해야 할 행동과 모방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학습하지 않고 관찰한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였다고 가정할 수 있다.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의 두 영역에 영향력이 큰 부모요인을 검증한 결과 훈육 태도보다는 부모의 모델링이 효과가 더 큰 주변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훈육방식의 대부분이 부모의 행동적인 통제보다는 언어적인 통제로 표현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언어적인 통제보다는 모델 행동의 관찰경험이 청소년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화 요인의 상대성을 규명한 결과 두 행동 모두 부모의 모델링 효과에 비해 친구의 모델링 효과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행동의 사회화 요인에서 친구보다는 부모요인의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Wolf & Chyne(1972, Wright, 1971. 재인용), Hu 등(1995)과 송순(199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나 그 해석이 어렵다. 물론 청소년기가 발달적 특성상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면서 친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지만 이것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기는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관찰자는 자신과 유사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 모델을 더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또 부모 환경과 친구환경을 비교할 때, 보다 지속적이고 강력하지만 자원과 권력에서 불평등한 부모보다는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친구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결과에서 앞으로 친구요인의 영향을 긍정적(친사회적 행동 모방) 혹은 부정적(규칙위반 행동 모방)인 방향으로 결정짓기보다는 어떤 친구와 어울리는가 그리고 청소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는 어떤 양상을 띠는가를 보는 것이 친구요인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더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나, 앞으로는 관찰자의 특성이나 관찰자의 사회화 수행자의 모델 행동에 대한 부적 평가를 포함하여 모방행동에 따른 설명요인을 규명하는 추후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모델링의 전반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는 미흡한 접근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관성 없이 제시되고 있는 결과들에 대한 재해석을 위해 친사회적 행동과 규칙위반 행동에 대한 관련성 및 사회화 요인의 영향력 규명에 중점을 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청소년 집단에서 두 행동간의 역상관성과 청소년의 친사회적, 규칙위반 행동에 부모요인

보다는 친구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보인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실제적인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가 크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이 부산시내에 한정하였고, 모델링의 도덕적 행동척도는 행동의 내용을 동일하게 하여 부모와 친구의 행동을 평정하게 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도덕적 행동이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 범위에 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성을 가진다. 따라서 더 포괄적인 표집과 도덕적 행동에 대한 부모의 모델링 효과를 보기 위한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친구의 도덕적 행동 수준이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 수준에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도덕적 행동과 관련하여 친구요인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제한(1998), 「발달심리학」, 서울: 양서원.
- 문화체육부(1997), 「청소년 백서」.
- 송 순(1994),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pp. 48-61.
- 유기섭(1994), 「교육심리학」, 서울: 동문사.
- 여인숙(1984), 「아동의 가정환경과 도덕적 판단능력 및 도덕적 행동과의 관계」.
- 윤영화(1978), “아동의 도덕적 발달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 연진영(1987), “아동의 공감발달 및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원효현(1987), “도덕성 발달의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1995), “충동성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봉선(1989), “부모의 훈육방식과 아동의 도덕판단 및 그 관계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1990), “부모의 온정, 통제 및 형제자매 환경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점숙(1984),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과 훈련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춘재 외(1988),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현우(1988), “도덕적 추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섯 가지 변인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훈구(1983), “친사회적 행동의 특성,” 연세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49, pp. 201-

- 239.
- 장휘숙(1975), “도덕적 판단능력과 도덕적 행동(정직성)와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1995), 「청년 심리학」, 서울: 장승.
- 정문성, 구정화(1991), “청소년의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행동의 관계연구-DIT점수와 문제 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 연구」, 6, pp. 74-89.
- 정현희(199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 조복희·유가호, 정옥분(1996), 「인간발달」, 서울: 교육과학사.
- 최보가(1993), 「아동발달」, 서울: 형설 출판사.
- 최순영·김수경 편(1995), 「인간의 사회적 성격과 발달」, 서울: 학지사.
- 한영희(1986),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친구관계와의 개념관계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순정(1989), 「어린이의 사회·도덕성 발달」, 서울: 창지사.
- Arnett, J. (1994), “Sensation seeking: A new conceptualization and a new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6(2), pp. 289-296.
-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1996a), “Multifaceted impact of self-efficacy beliefs on academic functions,” *Child Development*, 67, pp. 1206-1222.
-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1996b), “Mechanisms of moral disengagement in the exercise of moral ag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pp. 364-374.
- Brown, P. & Elilot, T. R.(1965), “Control of aggression in a nursery school clas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2, pp. 103-107.
- Bryan, J. H..(1975), “Children Cooperation and Helping Behavior,” In E. M.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5,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mpass, B. E., Madarne, R. L., & Fondacaro, K. M.(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3), pp. 405-411.
- Eisenberg-Berg, N. & Roth, K.(1983),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rosocial moral judgement: A longitudinal follow-up,” *Development Psychology*, 16(4), pp. 375-376.
- Hartshorne, H., May, M., & Shuttleworth, F. S.(1930), *Studies in the nature of character, 3: Studies in the organization of character*, N. Y.:Macmillan.
- Hay, D. F.(1979), “Cooperative interaction and sharing between very young Children and their parents,” *Development Psychology*, 15, pp. 647-653.

- Hoffman, M. L.(1970),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pp. 45-47.
- _____ (1975), "Developmental synthesis of affect and Cogni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altruistic motivation," *Development Psychology*, 11, pp. 607-622.
- HU, F., Flay, B. R., hedeker, O, S & Day, L. E.(1995), "The influence of friends' and parental smoking on adolescent smoking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5(22), pp. 2018-2047.
- Hurlock, E. B.(1985), *Child Development*, six ed. McGraw-Hill.
- John, W. S.(1996), *Adolescence*, Times Mirror Higher Education Group, Inc.
- Lickona, T. ed(1976), *Moral Development and Behavior-Theory, research, and social issues*, Holt, Rinehart and Winston.
- Mussen, P. H., Harris, S., Rutherford, E., & Keasey, C. B.(1970), "Honesty and altruism among pre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3, pp. 169-194.
- Patterson, C. R. & Reid, J. B.(1970), *Reciprocity and coercion: Two facets of social system*, N.Y: Appleton-Century-Crofts.
- Perry, D. C., & Bussey, K. 최순영 편(1984), 「인간의 사회적 발달」, 서울: 성원사.
- Ross, A.(1971), "Effect of Increased responsibility on bystander intervention: The presence of childr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 pp. 306-310.
- Sears, R. R., Maccoby, E. E., & Sevin, H.(1957), "A developmental approach to influence on adolescent's smoking and quitting,"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7, pp. 307-319.
- Wright, D.(1971), *The Psychology of Moral Behavior*, Baltimore: Penguin Books Ltd., p. 127.

ABSTRACT

The Effects of Socialization on Moral Behavior(Prosocial & Rule Violation Acts) among Adolescents

Kim, Kyong-Yun · Ha, Young-Hee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ization on moral behavior(prosocial & rule violation acts) among adolescents. The subjects were 698 boys and girls in first and third grade students of middle school and second grade students of high school. They were administered with the following five questionnaires to measure the prosocial & rule violation acts, the discipline technique of parents, the prosocial & rule violation acts of parents and friend. Results indicated that prosocial & rule violation acts correlated negatively. Friend's modeling were more susceptible to prosocial acts and rule violation acts.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and its implication and following study were suggested.